이용섭 시장 "황룡강변 아파트 난개발 하지 않겠다"

광주시의회 지적에 답변
"과도한 민자 유치가 논란 자초"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내에 대규모 아파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16일자 1면〉과 관련해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파트 개발 면적이 감소하거나 이를 억제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 계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광주시 투자유치 부서의 과도한 민간자본 유치 의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위주의 회색도시 광주를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이 개발사업도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자본을 끌어들여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으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전략 산업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모에 앞서 관련 실·국과 내부 조율,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는 주택 보급률 100%를 넘기고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욱이 개발 대상지는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국가 습지 지정이 추진되는 장록습지 주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사업 육성 뒤에 숨겨진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공모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날 예정된 내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간헐적·분산적 방식으로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는 체계적, 효율적, 친환경 개발이 될 것"이라며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사업과 관련해 어떤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정도 용납되지 않을 테니 사전에 업체가 내정됐다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예단을 말고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 "근거 없는 추측성 지적은 공동체 발전이나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설을 일축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0월 20일 광산구 지죽동 139만 5553㎡에 지역 전략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직주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안에 따르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발생 원인을 청취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민감 현안 빼고 광역협력사업 발굴에 집중

내달 1일 광주시·전남도 상생발전위원회…시·도지사 합의문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참여 아래 광주·전남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1일 전남도청에서 열릴 전망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나주 혁신도시 SRF 발전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민감 현안 또는 장기 과제는 이번 회의 안건에서 배제하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에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다음 달 1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기로 최근 뜻을 모았다. 지난해 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시에서 열린 만큼 윤번제에 따라 이번 회의는 전남도에서 개최한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10월 구성돼 협력과제를 추진해왔다.

상생발전위원회 개최에 앞서 시도는 지난달 27일 전남도청에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양측 실·국장들이 만나 그동안 상생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다. 당시 실무위 회의에서는 온라인 합동 일자리 박람회 개최, 감염병 공동대응 병상 교류,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등 9가지가 순조롭게 논의되면서 신규 협력 과제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에 이 시장과 김 지사가 뜻을 모아 전력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과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여론을 받아들여 미래전략산업 공동 발굴·추진, 대형 SOC 확충 등 초광역 사업 발굴에 공동 노력하겠다는 점을 합의문에 담는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 사업에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사회에서도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다"며 "시장, 지사가 이러한 내용을 앞세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상생발전위에서는 민감 현안 또는 장기 과제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실무위 회의에서 광주시 측 자문위원 일부가 "나주 SRF발전소 가동 중단 문제를 시장,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협력과제로 새로 지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남도 측이 "시도 상생발전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제외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상생발전위에서 시도 협력 과제로 이전에 선정됐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 전남도 행정통합 문제를 상생발전위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지난 2일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을 논의하기로 지난달 2일 합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제외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가족 참변 있고 나서야…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점검

북구 운암동 현장 찾은 이시장
"너무 죄송하고 큰 책임 느껴"

광주시가 가족 4명의 참변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광주일보 2020년 11월 18일자 6면〉와 관련해 뒤늦게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4명이 8.5t 화물차에 치여 아이 한 명이 숨지고, 어머니와 다른 아이 등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를 없애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눈에 띄도록 표지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일부 주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고 지점에선 지난 5월에도 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겪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용섭 시장은 "사고 발생 시각 도로 양쪽 아파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 신호를 받고 속도를 내는 차량 틈으로 시민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단순히 신호등을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차량·운전자 중심 교통 시스템을 사람·안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20일 간담회를 열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이 시장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다. 일가족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DJ 귀국, 민주화 위한 큰 결단"…YS가 케네디 의원에 보낸 서한 공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DJ)의 귀국은 한국 민주화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귀국 시 그를 가두려는 시도나 그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해 우려한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김영삼(YS)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그가 1985년 1월 7일 미국에 망명 중이던 DJ의 안전 귀국 보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19일 공개했다.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의장이던 YS는 편지에서 '김대중의 귀국 결정은 한국 민주화를 위한 큰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귀국한 김대중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YS는 '유력한 야권 지도자 중 한 명인 김대중'의 안전 귀국을 위해 케네디 상원의원을 비롯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편지를 쓰게 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도서관은 "민주화 운동 시기 두 사람의 협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둘은 정치적 경쟁자로서 경쟁 관계가 주로 부각됐지만 민주화 운동 시기 전체를 놓고 보면 상호 협력을 위해 공동투쟁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2차 미국 망명 시기인 1984년 12월~1985년 2월 미국에서 조직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에서 보관해왔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